**<등장인물>**

민구(70대/남) : 코로나 감염에대한 두려움이 지나쳐 사람들 접근을 피하는 인물. 직선적, 도전적 성격

상호(70대/남) : 민구의 옛친구, 난치병에 걸려있으나 정신이 건강하고 밝음. 온순하고 개 방적인 성격

중략

민구가 따라가다가 손을 흔들며 상호 가는 걸 바라본다.

상호가 씩씩한 걸음으로 걸어 나간다. 얼마쯤 가서 퍽 주저 앉더니 쓰러진다. 민구가 달려간다.

**야산 내리막**

민구가 쫓아가서 쓰러진 상호 가슴 맥박을 대보고 어깨를 흔든다.

**민구**

상호! 왜그래, 엉? 눈 좀 떠봐 엉?

몇초 후에 눈을 뜬 상호를 일으켜 앉히고 재빠르게 상호 쌕에서 물병을 꺼내 물을 먹여주며 묻는다.

**민구**

어디에 걸려 넘어진건가?

**상호**

(빙긋이 웃는다.)아니. 가끔 힘이 갑자기 빠질 때가 있어.

금방 나아질거야.

민구가 상호 팔을 잡고 부축해주어 일어나 흙먼지를 털어준다.

둘은 발걸음을 몇 발자국 떼다가 상호가 자기 병을 말한다.

**상호**

나 가끔 실신하는 거,

신경이 어쩌구 하는데,

난치병이래.

민구가 상호 팔을 잡고 멈춰서며 묻는다.

**민구**

뭐라구? 난치병?

**상호**

완치가 안된대.

그러니 그냥

내 운명 기다릴 수는 없잖아.

상호는 하늘을 응시하다가 민구 얼굴을 바라본다.

**상호**

하던 일

계속하는 거야.

**민구**

뭔 일**?**

**상호**

환경운동단체에서 하는 일.

아무렇지도 않게...

**민구**

흠,

상호가 발 걸음을 떼기 시작한다. 민구도 발걸음을 떼며 듣는다.

**상호**

숲을 거닐며 하는 거라

몸에도 좋지.

**민구**

(끄덕이며)그래!

**상호**

그럼. 오늘도 숲속의 이용도를

관찰하러 왔었어.

**민구**

날 만나러 온거 아니야?

**상호**

야! 뜻밖에 자넬 만나서

기분 되게 좋구만.

민구는 상호를 붙들고 멈춰서서 상호 등을 두드리며 묻는다.

**민구**

아 참, 존경스럽다.

**상호**

뭐가?

**민구**

어떻게 그리 밝지?

코로나 하나로도

난 이렇게 힘든데 말야.

상호는 자기병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극복해 가고 있는지를 말한다.

**상호**

응, 나도 진단 받고는 힘들었지.

늘 누워만 있으니

사는 거 같지도 않고..

**민구**

아이구 그랬구먼.

**상호.**

봉사 일을 찾았지.

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

팔락팔락 일했지.

민구가 손바닥을 잽싸게 흔든다.

**민구**

팔락 팔락?

바람에 흔들리는?

잎사귀처럼?

**상호**

응. 이상하게도 움직이니까

힘이 생기는 거 같더라고.

**민구**

정말?

**상호**

그럼, 아 코로나건 뭐건

이정도로 다닐 정도면

준수하지 않나? 하하...

**민구**

야, 대단해. 아픈 건 생각안해?

**상호**

아이구,

좋은 거만 생각하기도 모잘라.

상호가 쌕에 꽂혀 있는 비닐봉투에 돌돌 말린 집게를 쭉 빼서 민구에게 준다.

**상호**

이거 줄게, 기분 좋아 질거야. 하하

**민구**

팔락팔락? 사람 속으로? 으하 알았어.